

우송정보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13. 1. 17.
재적인원 9 명	참석인원 8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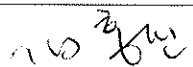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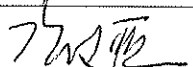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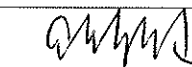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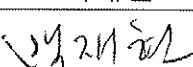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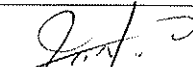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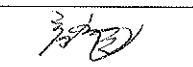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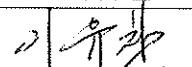
1. 회의일시 : 2013년 1월 22일(월) 11:00
2. 장 소 : 우송관 회의실
3. 위원현황 :

구 분	직 위	성 명	참 석	비 고
위원장	부 총 장	김 흥 진	○	
위원	학생복지처장	강 권 표	○	
위원	기획실장	오 석 선	○	
위원	총무팀장	조 을 연	○	
위원	전문가	백 재 현	○	
위원	동 문	유 지 권	○	
위원	총학생회장	김 용 규	○	
위원	대의원의장	이 유 찬	○	
위원	총학생회부회장	어 가 영	×	

4. 안 건 : 2013학년도 우송정보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
5. 회의내용

위원장(김흥진)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송정보대학 등록금 책정(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위원장(김흥진) :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과 2013년도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 (국가장학금 정책 및 학교의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등록금 책정고려요소인 2013년 대학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 공고내용, 도시근로자 가계소득현황, 전국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전국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상승률, 기본운영비 증가 요인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제도 개선사항, 2013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자구노력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하다.

김흥진	강권표	오석선	조을연	백재현
				
유지권	김용규	이유찬		-
				

위원(김용규) :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기급등과 각종 생활물가 상승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등록금을 5% 인하 하였음에도 2013년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에 전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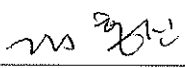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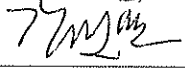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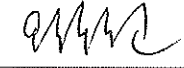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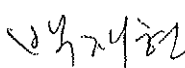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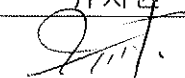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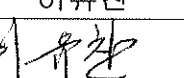
위원(유지권) : 전년도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하고,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되고, 편제정원이 110명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유지시키고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김홍진) : 우리대학은 2011학년도에 건축기금과 발전기금 중 10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로 장학금 일부를 충당한다면 2013학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오석선) :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예산을 증액 개선하여 대학의 자체 등록금 부담완화 계획과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 계획을 보면 국가장학금 배정액 이상을 반영하신 걸로 보입니다.

위원(이유찬) : 많은 학생들이 정부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웠는데, 각종 물가상승으로 학교의 운영비 증가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에 감사를 표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 다행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폭의 인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조을연) : 다학기제가 도입되면서 방학동안에 집중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납부방법을 종전과 같이 연2회 균등납부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인한 학기중 운영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진	강권표	오석선	조을연	백재현
				
유지권	김용규	이유찬		-
				

위원(강권표) : 등록금 책정안 자료를 보면 계열간 인하율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학과 등록금을 많이 인하할 경우 향후 정책 전환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학과만 조정하는 (1안)보다는 전체 (2안)이 전체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백재현) : 등록금을 같은 비율로 인하할 경우 학과간 격차가 심화되고 상위 학과의 등록금을 조정함으로써 학과간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을 물론 학교의 등록금 평균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인하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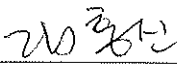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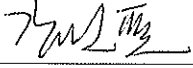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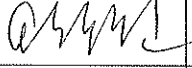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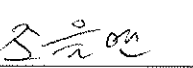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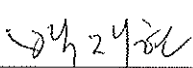
위원(오석선) :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부시책이나 타대학교의 차별화등을 고려하고 향후 각종 평가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을 봤을 때 학교측에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2.2%, 다학기제로 인해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계획을 수립하고 장학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중에서 제2안 인문계열(0.6%), 자연/공학/예체능계열(0.9%), 외식조리과(0.8%), 재과제빵과(0.8%), 조리부사관과(0.6%)를 인하하여 평균 0.1% 인하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김홍진) :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유지권) :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오석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다. (전원 동의에 재청하다.)

위원장(김홍진) : 오석선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재청에 따라 2013학년도 우송정보대학 등록금 책정을 심의한 결과 학교 측에서 제시한 (2안) 평균 0.1% 인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13년 1월 22일

김홍진	강권표	오석선	조을연	백재현
				
유지권	김용규	이유찬		-
